

<2012년 7월 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탄은 자기 법으로는 사람들과 안 통하니,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며 통한다.
2. 하나님의 법만 지키면 사탄과 상관없다.
3. 하나님은 사탄의 그 비열한 짓을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신다.
4.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5. 사랑하는 자끼리 할 말 다 하면 더 이상 할 말 없어 끝나듯이, 사랑도 더 할 것이 없으면 끝나게 된다.
6. 주와 사랑 거리가 없으면 사랑이 끝나고 말게 된다.
7. 사랑 거리를 만들어야 사랑하게 된다.
8. 남녀의 불타던 사랑도 나무가 다해 불이 꺼지듯 하니, 자꾸 나무를 구해다 태워 따뜻하게 하듯이 사랑 거리를 만들어야 사랑이 끝나지 않는다.
9. 성자 주님과 사랑도 사랑할 자료가 다하면 끝나게 되니, 자꾸 사랑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10. 사랑 거리를 자꾸 만들어야 된다. 안 만들면 사랑하는 자와의 사랑이 끝나게 된다.
11. 주님과 사랑 거리는 많고도 많다. 기도하면 만 가지나 보여 주신다. 평

생 사랑의 에너지다.

12. 사랑 거리가 다하면 불타는 사랑도 끝난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건 사랑을 했더라도 사랑이 식어서 싸우고 끝나게 된다. 사랑의 새 이벤트다. 나이가 들어도 자꾸 사랑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13. 회사도 자꾸 새로운 상품을 고안해서 만들어 내야 된다. 그래야 회사가 약해지지 않고 창대하게 된다.

14. 매일 새로운 것을 구상하며 주와 사랑해야 된다.

15. 사랑의 자료가 다하면 사랑이 식어 사랑하는 자와 멀어지고 헤어지게 된다.

16. 말씀도 때가 되면 새로운 말씀을 줘야 늘 새로운 역사로 희망차게 뛴다.

17. 할 일이 없으면 역사는 끝난다.

18. 기성은 새로운 것이 없어서 젊은 자들이 놀고, 일자리가 없어서 모두 실업자가 되어 제 갈 길을 가고, 늙은 자들은 할 일이 없어도 존재하고 있으니 늙은 자들만 북적댄다.

19. 섭리사에서 자꾸 새로운 일을 만들어 일을 시켜야 된다.

20. 월명동도 옛날에 만든 그대로 놓고 보기만 하면 옛것이 되고 만다. 자꾸 더 만들면 옛것이 함께 빛나게 된다.

21. 섭리사 문화도 똑같다. 옛것만 고수하면 새 역사가 기성처럼 된다. 자꾸 새롭게 해야 된다.

22. 어느 한 교파는 섭리사를 따라 하다가 이제는 못 한다. 계속 따라하다 보면 섭리사에 와야 되니 못 따라 하고, 또 섭리사가 계속 차원을 높여서 하니 이제는 힘이 없어서 못 따라 한다.

23. 이 시대는 재림의 때다. 고로 재림의 말씀을 외쳐라.

24. 재림 때 성자는 신랑으로 오신다. 고로 성자가 재림할 때는 ‘신부의 몸’이 필요하듯이 ‘사랑’이 필요하다.

25. 남녀가 늙어서 첫사랑이 식는 것이 아니다. 몇 개월만 지나도 사랑의 권태증이 와서 진절머리가 나서 서로 안 만난다.

26. 남녀가 사랑 관계도 다 해 보고 호기심이 나는 것을 다 해 봤으니,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듯 호기심이 없어서 사랑이 식는다.

27.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성자 주님과 정신 사랑에 불붙이고, 영 사랑에 불붙여라. 그 사랑은 영원히 끝이 없다. 인간의 날 1000년이어도 하나님과 성자 주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밖에 안 된다.

28. 섭리사에서 할 일을 다 하고 호기심이 다하면 섭리사를 나가게 된다.

29. 기도 안 하면 신앙의 권태증에 빠진다.

30. 선생같이 늘 새로운 말씀을 받고, 새로운 발견을 하여라.

31. 월명동도 구경할 것을 다 구경하면, 더 이상 안 돌아다닌다.

32. 새로운 것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는 가 본다.

33. 첫사랑이 안 식으려면 자꾸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이벤트를 해야

된다.

34. 각자 새롭게 기도하고, 새롭게 행하기다.

35. 성자 주님과 사랑할 가짓수는 수백 개나 있다. 자기 생각에서 끝났다고 해서 다 했다고 하지 말아라.

36. 쌀을 가지고 밥만 해 먹고 살면 “또 밥해 먹어?” 하며 지겨워한다. 쌀을 가지고 40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40일 동안 늘 희망이다.

37. 반복하면 뭐든지 지겹고 권태가 온다.

38. 남녀가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이 불타도 서로 이성 관계만 하면 지겨워서 권태증에 빠지고 힘들어서 사랑의 불이 꺼진다. 같이 먹고, 배부르면 등산 가고, 등산 가서 땀 흘리면 수영장에 가고, 수영하면 배고프니 별미 먹으러 가고, 또 힘이 생기면 구상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성자 주님의 신부로서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다. 고로 늘 사랑을 연구해야 한다.

39. 사랑의 가짓수를 늘려라. 사랑을 배워라.

40. 사랑은 가짓수대로 느껴지고 새롭게 만들어져 희망이다.